



막 잡은 갯장어를 회로 썰고 있는 정광호 문정옥(61·가운데) 선장.



마을 어귀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새참을 먹고 있는 7명의 개도 할머니들. 취재진에게 스투머를 건넸다.

하이힐 닮은 꽃섬 하화도 ... 주위 섬들 거느린 개도



여수의 지도를 놓고 보면 하화도와 개도는 남도에서 월호도, 화태도로 이어지는 연근해 '섬 라인'의 하단부를 구성하고 있다. 마치 여성의 하이힐과 비슷한 하화도는 주황색 지붕과 부추로 유명하다. 지난 7월 22일 정오경 선착장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와쏘슈퍼'와 마을회관이다.

주황색 지붕은 하화도가 비행기 항로에 자리해 정부 방침으로 강제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색의 지붕도 등장하고 있다. 부추전은 섬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맛보는 하화도의 음식. 조그만 섬은 둘레가 5.7km에 불과해 3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다.

'블루오션' 다도해 <22>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여수편 - 하화도·개도

정영오 사장은 "편의시설이라고는 민박집 밖에 없어 아직 객지 사람 맛을 준비가 안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개도 안내는 백기광(35·8급) 주무관이 맡았다. 소장과 백 주무관 등 2명이 개도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 1년이면 인사이동으로 섬을 떠난다. 과거 개도 출신인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그가 섬을 떠나자 정규직이 개도에 배치됐다는 것이 백 주무관의 설명이다. 섬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외지인의 섬 안내에 서툰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셈이다.

개도의 여석마을 어귀에는 마을 수호신으로 돌로 세운 사람 할아버지·할머니 '벅수'가 남아 있었다. 잡초에 가려 있을 정도로 관심 밖의 대상이었지만 주민들은 그것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여석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모퉁이에 다다르니 7명의 할머니가 거리에 앉아 담소중이었다. 발길을 마치고 막 새참을 먹던 63~83세의 할머니들은 느닷없는 젊은이들의 등장에 반가운듯 인삿말과 함께 떡을 깎아 건넸다. 파란바가지에 담긴 설익은 개복숭아와 딱딱하게 굳은 떡이 그녀들의 간식거리.



관을 쓴 할아버지 벅수.



할머니 벅수.

방문객들 반기는 '와쏘슈퍼'



'와쏘슈퍼'는 하화도 23가구의 '아들' 임광태(54·사진) 이장이 운영하고 있다. 3년 전 부모님 모시듯 마을어른들 모시고 살겠다고 고향에 온 그는 "주민 31명 가운데 대부분이 70대 이상"이라며 "70년대 미역과 김양식이 잘 돼 주민들이 돈 벌어 다 나가버렸다"고 토로했다. 소득 높고 깨끗한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임 이장의 포부다. 하화도를 떠나려는데, 마침 임 이장을 만나러온 정광호 문정옥(61) 선장이 막 잡은 하마를 몇 마리 낚아채더니 회로 썰어 건넸다. 하마회를 싸들고 개도로 향했다.

개도는 화정면사무소가 있는 백야도보다 큰 섬이다. 섬 이름도 주위의 섬들 거느린다는 의미에서 덮개(蓋)자를 쓴다. 봉화산과 천제산이 개의 귀모양이어서 난중일기에는 개이(耳)섬으로 등장하는데, 군마 기르던 목장터, 모전봉돌자갈밭, 임진왜란 당시 수군이 창, 칼 등 무기 갈았다는 숯돌기미, 푸른 색을 띠는 청석포 등이 볼만한 자원이다. 잠전 북개도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잠전북과 개도막걸리가 유명하다.

둘레 5.7km 3시간 코스 하화도 23가구 주민 31명 오순도순 살아 개도 어귀 350년 된 느티나무 주민들 '젓통나무'로 불려 "만지면 좋은 인연을 만난당께"

조선시대 봉화는 전라도좌수영으로 향하는 '관봉'과 수도인 한양을 목표로 하는 '집봉'으로 구분된다. 개도는 집봉으로, 조선시대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착장 바로 앞에는 화산회식당이 있다. 개도 출신 정영오(52)·나로도 출신 최성관(52) 부부가 1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소개로 만나 20살에 부부가 돼 2남2녀를 키우고 있다. 개도에 들어와 막내아들(10)을 갖고 부부 급습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개복숭아 맛 없어도 잘 먹그마잉"

개복숭아를 입에 물었더니 "맛이 없을 것인데, 잘 먹그마잉"이라며 더 권했다. 마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취재진에게 '젓통나무'를 소개했다. 마을 어귀의 350년된 느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데, 나무 중간 중간이 여자의 가슴 형태로 볼록 솟아 있었다. 한 할머니는 "그것을 만지면 좋은 인연을 만난당께"라며 미소지었다.

개도 이곳저곳을 더 보기 위해 할머니들 사이에서 급히 자리를 떴지만 다시 기상이 발목을 잡았다. 곧 해무가 짙게 드리우면서 서둘러 물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50년된 느티나무. 개도 마을주민들은 '젓통나무'라고 부른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